



3.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국호를 신라로 바꾸고, 왕의 칭호도 마립간에서 왕으로 고쳤다. 대외적으로는 우산국을 복속시켰다.  
 (나) 한강 유역을 빼앗고, 고령 지역의 대가야를 정복하였다. 북쪽으로는 함경도 지역까지 진출하였다.

- ① 백제 동성왕과 혼인동맹을 맺었다. ② 김씨에 의한 왕위 계승권이 확립되었다.
- ③ 진골 귀족 세력의 반발로 녹읍이 부활되었다. ④ 병부를 설치하고,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였다.

답4>

참고> **삼국사기(황의방 한국사) 48~49쪽, 6세기 신라**

해설> (가) 신라 지증왕(500~514)은 국호를 신라로 바꾸고 왕의 칭호도 마립간에서 왕으로 고쳤으며, 이사부를 보내 우산국(울릉도)을 복속시켜 세력을 확장하였다.

(나) 신라 진흥왕(540~576)은 한강 유역을 장악하고, 남으로는 고령의 대가야를 정복하여 낙동강 서쪽을 장악하는 등 영토를 확장하였으며, 함경도 지역까지 진출하는 등 영토를 확장하여 삼국 경쟁의 주도권을 신라가 장악하게 되었다.

- CHECK> ① 백제의 동성왕과 신라의 소지왕은 결혼동맹을 체결하였다(493).  
 ② 4세기 내물마립간 때 김씨가 왕위를 독점하면서 왕위 계승권이 확립되었다.  
 ③ 경덕왕 16년 월봉을 없애고 다시 녹읍을 지급하였다(757).  
 ④ 법흥왕(514~540) 병부를 설치하여 군사권을 장악하였고,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여 국가 통치질서를 확립하였다.

4. 1970년대 시행된 정책이 아닌 것은?

- ① 금융실명제의 실시 ② 새마을 운동의 추진
- ③ 통일벼의 전국적 보급 ④ 수출 주도형 중화학 공업화

답1>

참고> **삼국사기(황의방 한국사) 589~592쪽, 박정희 정부**

해설> ② 박정희 정부는 새마을 운동을 추진하여 농어촌의 환경 개선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다(1970).

- ③ 박정희 정부는 통일벼를 1972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보급하여 쌀 수확량을 높였다.  
 ④ 박정희 정부는 1972년 3차 경제개발 계획부터 중화학 공업화를 추진하여 수출 증대에 의한 국제 수지를 증가시켰다.

CHECK> ① 김영삼 정부는 은닉자금을 끌어내기 위해 금융 실명제를 시행하였다(1993).

5. 다음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된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향회라는 것이 마을 사민의 공론에 따른 것이 아니고, 수령의 손아래 놀아나는 좌수·별감들이 통문을 돌려 불러 모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 향회에서는 관의 비용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제 멋대로 돈을 거두고 법을 만드니, 일의 원통함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 ① 사족의 향촌 지배력이 약화되었다. ② 수령과 향리의 영향력이 약해졌다.
- ③ 향회는 수령의 부세 자문 기구로 전락하였다. ④ 양반 사족과 부농층이 향촌의 주도권 다툼을 벌였다.

답2>

참고> **삼국사기(황의방 한국사) 332~334쪽, 조선 후기 향촌의 변화**

해설> 조선 후기 구향들이 새로 성장한 신향들의 도전은 계속 받았다. 경제력을 갖춘 신향들은 수령을 중심으로 한 관권과 결탁하여 향안에 이름을 올리려는가 하면, 향회를 장악하여 향촌 사회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하려 하였다(향전). 종래의 재지 사족의 힘이 점차로 약화되었고 종래에 재지 사족인 양반의 이익을 대변하여 왔던 향회는 주로 수령이 세금을 부과할 때에 의견을 물어 보는 자문기구로 구실이 변화하였다.

CHECK> ② 조선 후기 향촌 사회에서는 수령을 중심으로 한 관권이 강화되고 아울러 관권을 맡아 보고 있던 향리의 역할이 커졌다.

6. 8·15 광복 직후 일어난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 ① 여운형은 조선건국동맹을 조직하였다. ②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건국강령을 발표하였다.
- ③ 조선여학회는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시작하였다. ④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한반도 문제가 논의 되었다.

답4>

참고> **삼국사기(황의방 한국사) 535~539쪽, 광복 직후의 정세**

해설> ④ 광복 이후 38도선을 경계로 한반도가 이념적으로 분단되고, 남과 북에 미군과 소련군의 군정이 실시되는 가운데, 미국, 영국, 소련의 3국 외상은 모스크바에서 회의를 열어 한반도 문제를 협의하게 되었다(1945.12).

- CHECK> ① 여운형은 좌·우익 합작 단체인 조선건국동맹을 조직하였다(1944)  
 ②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조소앙의 삼균주의에 바탕을 둔 건국강령을 발표하였다(1941).  
 ③ 조선여학회(1931~1942)는 우리말 큰사전의 편찬에 착수하였으나, 일제의 방해로 성공하지 못하였다.

※ 본 자료는 저작권법 제97조5항(권리의 침해죄)에 의거하여 무단복제, 공연, 방송, 전시, 전송, 배포, 2차적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를 침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0. 다음 취지서를 발표한 단체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릇 우리나라의 독립은 오직 자강(自強)의 여하에 있을 따름이다. ... (중략) ... 그러나 자강의 방도를 강구하여 할 것 같으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교육을 진작하고 산업을 일으키는 데 있으니 무릇 교육이 일어나지 못하면 민지(民智)가 열리지 않고 산업이 일어나지 않으면 국부가 증가하지 못하는 것이다. 교육과 산업의 발달이 곧 자강의 방도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 ①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여 러시아의 침략 정책을 강력하게 규탄하였다.
②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다가 일본의 탄압으로 해산되었다.
③ 방직, 고무, 메리야스 공장을 육성하여 경제 자립을 이루자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④ 일본의 황무지 개간에 대한 대중적인 반대운동을 일으켜 이를 철회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답2>

참고> 삼 한국사(황의방 한국사) 452~453쪽, 대한자강회

해설> 대한자강회(1906)는 헌정 연구를 모체로 하고 사회단체와 언론 기관을 주축으로 하여 창립한 애국계몽운동 단체였다. 전국 각지에 지회를 설치하고 월보의 간행과 연설회의 개최 등을 통해 국권회복을 위한 실력 양성 운동을 전개하였고, 고종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주도하다가 일제의 탄압으로 해체되었다(1907.8).

CHECK> ① 독립협회는 만민공동회와 관민공동회를 개최하여 열강의 침략 정책을 강력하게 규탄하였고 국권수호, 인권보장, 국정 개혁을 주장하는 등 계몽 운동을 전개하였다.

③ 민족 경제의 자립을 달성하기 위한 민족운동의 일환으로 물산 장려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④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에 대하여 송수만, 원세성이 중심이 되어 항일 운동 단체인 보안회(1904)를 조직하여 활동하였고, 일본의 요구를 철회시켰다.

11. 다음에서 설명하는 인물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성은 김씨이다. 29세에 황복사에서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다. 얼마 후 중국으로 가서 부처의 교화를 보고자 하여 원효와 함께 구도의 길을 떠났다. ... (중략) ... 처음 양주에 머무를 때 주장(州將) 유지인이 초청하여 그를 관아에 머물게 하고 성대하게 대접하였다. 얼마 후 중남산 지상사에 가서 지엄(智儼)을 뵈었다. -삼국유사-

- ① 화엄일승법계도를 저술하여 화엄사상을 정리하였다.
② 중국에서 풍수지리설을 들여와 지세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③ 심문화쟁론을 지어 종파 간의 대립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④ 인도와 중앙아시아 지역을 여행하고 돌아와 왕오천축국전을 저술하였다.

답1>

참고> 삼 한국사(황의방 한국사) 98쪽, 의상

해설> 의상은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적인 관계(一即多 多即一)가 있으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화엄 사상을 정립하였고, 화엄일승법계도를 남겼다. 또한, 의상은 화엄사상을 바탕으로 교단을 형성하였고, 부석사 등 많은 사원을 건립하였다. 의상은 아미타 신앙과 함께 현세에서 고난을 구제받고자하는 관음 신앙을 설파하여 불교를 일반인에게 널리 알렸다.

CHECK> ② 신라 말 선종 승려 도선은 중국에서 유행한 풍수지리설을 전래하였다.

③ 원효는 심문화쟁론을 저술하여 분파의식을 극복하였고, 불교의 대중화를 위하여 자신이 직접 아미타 신앙을 전도하였다.

④ 혜초는 자신이 돌아본 인도와 중앙아시아 등 여러 나라의 풍물을 생생히 기록한 왕오천축국전을 남겼다.

12. 밑줄 친 '북국(北國)'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성왕 6년 3월 북국(北國)에 사신을 보내 방문(聘問)하였다. ... (중략) ... 요동 땅에서 일어나 고구려의 북쪽 땅을 병합하고 신라와 서로 경계를 맞대었지만, 교빙한 일이 역사에 전하는 것이 없었다. 이 때 와서 일갈찬 백어(伯魚)를 보내 교빙하였다.

- ① 감찰 기관으로 중정대가 있었다.
② 최고 교육 기관으로 태학감을 두었다.
③ 중앙의 정치 조직으로 3성 6부를 두었다.
④ 지방의 행정 조직으로 5경 15부 62주가 있었다.

답2>

참고> 삼 한국사(황의방 한국사) 70~71쪽, 발해의 통치체제

해설> 원성왕(785~798)은 통일신라의 왕으로 북으로는 발해와 경계를 맞대고 있었다.

CHECK> ① 발해는 관리 비리 감찰을 위하여 중정대를 두었다.

② 신라 신문왕 때 국학을 설치하였고(682) 경덕왕 때 태학으로 고쳤다.

③ 발해는 당의 3성 6부 제도를 모방하였으나, 명칭과 구성은 독자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하였다.

④ 발해 선왕은 지방 행정구역을 5경 15부 62주로 정비하였다.

※ 본 자료는 저작권법 제97조5항(권리의 침해죄)에 의거하여 무단복제, 공연, 방송, 전시, 전송, 배포, 2차적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권을 침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6. 동학농민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주화약 이후 조선 정부는 청·일 군대의 철수를 요청하였다.
- ② 조선 정부는 농민들의 요구에 대응하여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였다.
- ③ 청·일 전쟁 발발 직후에도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집강소가 운영되었다.
- ④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한 후 전라도와 충청도 지역의 농민군이 연합하였다.

답2>

참고> **쌈 한국사(황의방 한국사) 394~397쪽,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해설> ② 임술년 진주농민봉기(1862)는 세도정치기 극심한 삼정의 문란으로 인한 농민들의 항쟁이었다. 이에 정부는 민심 안정을 위하여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여 삼정의 문란을 시정할 것을 약속하였다(1862.철종).

17. 1920년대 산미 증식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춘궁 퇴치·자력갱생 등을 내세웠다.
- ② 쌀·잡곡에 대한 배급제도와 공출제도가 실시되었다.
- ③ 소작농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소작조정령을 발표하였다.
- ④ 공업화로 인한 일본의 식량부족문제를 해결하고자 실시하였다.

답4>

참고> **쌈 한국사(황의방 한국사) 464~465쪽, 산미증식계획**

해설> ④ 산미증식계획은 1차 세계대전 후 일본 내의 이촌향도현상이 진행되면서 쌀값이 폭등하여 혼란이 있을 무렵 일제는 부족한 식량을 한반도에서 착취하려 시작한 것이 산미증식계획이다(1920~34).

CHECK>

①③ 농촌진흥운동(1932)은 우리 민족운동에 대한 일제의 탄압 정책이었고, 우리 농촌에 대한 수탈 정책이었다. 일제는 개개의 농가를 철저히 파악하여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자작 농지의 설정 사업(1932), 조선 소작 조정령(1933), 조선농지령(1934) 등을 실시하였다.

② 미국공출제와 식량배급제는 민족말살 통치 시기인 1930년대 이후 일제의 전시 수탈 정책이다.

18. 다음 법이 공포된 이후 나타난 일제의 지배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4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 상 필요할 때에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 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 ① 마을에 애국반을 편성하여 일상생활을 통제하였다.
- ② 일본식 성과 이름으로 고치는 창씨개명을 시행하였다.
- ③ 여성에게 작업복인 ‘몸빠’라는 바지의 착용을 강요하였다.
- ④ 토지 현황 파악을 위해 전국적으로 토지 소유권을 조사하였다.

답4>

참고> **쌈 한국사(황의방 한국사) 465~470쪽, 민족말살통치**

해설> 1938년에는 국가 총동원령을 제정하여 전쟁 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는 것은 물론 한민족의 생존과 문화까지 말살하려 하였다. 일제는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1938), 국민 총력 조선 연맹(1940)을 통해 10호 단위로 애국반을 조직하여 국민생활 전반을 철저히 통제하였고, 일본식 이름으로의 개명을 강요하였다.

CHECK>

③ ‘몸빠’ 바지는 1940년 전후에 유래된 것으로, 일제가 여성들의 노동력 동원을 위하여 강제한 옷으로 여성이 일할 때 입는 헐렁한 바지다. 1930년대 후반부터 전시 동원 체제로 식민정책이 전환하면서 우리 여성들은 전시체제하의 작업복을 입어야만 했다.

④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은 식민지 지주제의 확립과 농민층의 계층 분화와 몰락을 촉진시켰다.

